

클럽월드컵 개막

11일 오사카 스타디움서 북중미-카리브해 챔피언 클럽 아메리카와 맞대결

아시아 챔피언 전북현대모터스가 참가하는 2016 국제축구연맹 클럽월드컵이 8일 개막했다.

7일 일본 오사카로 출국한 전북 현대 선수단은 11일 오후4시 오사카 스타디움에서 북중미카리브해 챔피언인 클럽 아메리카(멕시코)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전북은 2006년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처음 클럽월드컵 참여 당시에도 클럽 아메리카와 맞대결을 펼쳤으며 당시 0대0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바 있다.

10년만의 리턴매치를 앞두고 있는 전북 선수단의 분위기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의 핵심인 권순태 골키퍼와 주포 로페즈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연습을 지켜본 결과 김신욱과 이봉국, 김보경, 이재성, 레오나르도 등 주요 선수들의 폼상태가 최상에 가깝게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강희 감독 역시 출국 인터뷰에서 "클럽 아메리카는 좋은 팀이지만 분위기는 10년 만에 아시아 맹주가 된 우

리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기를 시너지로 연결시켜 국내 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7차례나 북중미카리브해 챔피언에 오른 클럽 아메리카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멕시코 축구의 최고 명문 구단으로 선수들의 개인기량이 출중하고 역습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경계 해야 할 선수로 멕시코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오리베 페랄타 선수를 꼽고 있다.

전북이 난적 클럽 아메리카를 꺾는다면 14일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으로 장소 옮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가레스 베일 등 세계적인 스타가 출비한 레알 마드리드와 4강전을 펼치게 된다.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 챔피언 자격으로 2014년에 이어 2년 만에 정상 등극을 노리고 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 해외 축구팀 중 최고 인기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와 맞대결이 성사될지 국내축구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



7일 일본 오사카로 출국한 전북 현대 선수단은 11일 오후4시 오사카 스타디움에서 북중미카리브해 챔피언인 클럽 아메리카(멕시코)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되고 있다.

또한 K리그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대륙별 클럽 챔피언 6개 팀과 개최국인 리그 우승팀 등 모두 7개 팀이 출전한다.

전북 현대(대한민국), 클럽 아메리카(멕시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콜롬비아), 오세아니아의 올랜트 시티(뉴질랜드), 아프리카의 마멜라디 선다운스(남아공), 가

시마 엔틀러스(일본)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의 우승 상금은 500만 달러로 한화 59억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의 상금을 자랑하고 있다.

전북은 출전 자체로 11억 원에 가까운 상금을 이미 확보했으며 클럽 아메리카전에서 승리 시 전북의 상금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국내클럽 중 2012년 울산에 이어 4년 만에 클럽월드컵에 출전한 전북현대가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기자

부안군체육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부안군 체육회는 오감을 느끼고 오복을 누리는 축복의 땅 부안에서 열리는 "제54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 질 수 있도록 부안군의 비전 및 전북도민의 뜻과 이상을 담을 수 있는 대회 상징물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2017년 1월 6일까지이며 공모부문은 총 3개 분야로 포스터, 엠블럼,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총상금 6백만 원 규모로 포스터·엠블럼의 경우 당선작은 각 2백만 원, 가작은 각 50만 원이고 슬로건은 당선작 70만 원, 가작은 30만 원이다.

당선작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017년 1월경 결정하여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063-580-39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GS칼텍스, 새 사령탑에 차상현 선임 감독 선임

프로배구 GS칼텍스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지휘봉을 놓은 이선구 감독의 후임으로 세화여고 차상현(42·사진)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GS칼텍스는 "12대 사령탑으로 차상현을 세화여고 감독을 선임했다. 계약기간은 2018~2019시즌까지 총 2년 6개월로 계약조건은 상호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단 측은 "시즌 중임을 감안해 선수단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상현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신임 차 감독은 GS칼텍스에서 3시즌 동안 수석코치를 맡은 경험이 있는 젊은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소통을 통한 돈독한 유대 관계로 이른바 '오빠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 성과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차 신임 감독은 "마음의 고향과 같은 GS칼텍스에 돌아와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분위기를 빠르게 반등시켜 플레이오프 진출의 1차 목표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기자

박태환,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관왕

박태환(27)이 제13회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8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코스 신기록인 1분41초08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전날 자유형 400m에서 3분34초59로 모처럼 세계대회 정상을 밟은 박태환은 자유형 200m까지 휩쓸며 2관왕을 달성했다. 전체 7위로 예선을 통과한 박태환은 결승에서 1번 레인에 섰다. 끝에 배치된 1번 레안은 중앙 레인들에 비해 물살의 방해가 심하다.

물론 박태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작과 함께 선두로 치고 나간 박태환은 50m 구간을 23초 56의 1위 기록으로 통과했다.

박태환은 이후에도 페이스를 유지했다. 꾸준히 속도를 붙이며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벌린 박태환은 여유있게 1위를 확정했다.

한 차례도 1위를 빼앗기지 않는 완벽한 레이스였다. 박태환은 11일 열리는 자유형 100m와 1500m에서 또 다시 메달 사냥을 노린다.

/김민근기자

'부활의 신호탄' KCC이지스, 3연승 질주

에밋·하승진·전태풍 핵심 선수들 결장에도 우승후보 동부·부산 KT·전자랜드 연이어 격파

전주KCC이지스 농구단이 1라운드의 부진에서 벗어나 3연승을 거둬 완벽한 부활을 선언했다.

KCC는 지난 7일 홈으로 인천 전자랜드를 불러드려 77대61로 15점차 완승을 거뒀다. 끈끈한 수비와 탄탄한 조직력, 유기적인 공격 삼박자가 고루 맞은 훌륭한 경기력이었다.

전주는 이미 지난 3일 우승후보 원주 동부와 11월 20일 부산 KT를 격파한 바 있다.

놀라운 것은 지금 KCC의 연승이 핵심선수인 안드레 에밋, 하승진, 전태풍이 전부 장기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KCC의 시즌 첫 3연승은 영점조준이 완벽하게 된 3점포의 김지후와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송교창, 아전사령관 이현민 등 국내선수들이 이끌고 있다.

특히 김지후는 3경기에서 무려 65점을 퍼부으며 같은 기간 국내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가 됐다.

전태풍의 부상으로 풀타임을 소화하게 된 김지후는 오히려 볼 소유 시간을 최대로 즐기고 빈 공간을 찾아가는 캐치앤 슈터의 진면목을 보이고 있다.

전태풍과의 공존에 어려움을 겪던 이현민 역시 김지후와는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KT전 10어시스트, 동부전 5어시스트, 전자랜드전 10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아전사령관의 진면목을 선보이고 있다.

2년차에 접어든 고종우키 송교창은 공격수비 다방면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교창은 각 팀의 주포를 전담마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경기에서 12경기를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외국인 선수들 역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시즌 초반 에밋과의 공존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리오 라이온스는 오히려 에밋과 다른 스타일의 에릭 와이즈가 대체용병으로 투입된 이후 물 만난 고기처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리오 라이온스는 안드레 에밋과 다르게 골밑을 선호하는 에릭 와이즈 덕분에 장기간 풀파와 외각슛이 동시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와이즈는 단순히 골밑만 지키지 않으며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준 끝에 이날 61득점만을 기록한 전자랜드가 이번 시즌 최소 득점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

4위 원주 동부와 5위 전자랜드를 차례로 꺾고 6위 울산 모비스를 2경기 차이까지 좁힌 전주 KCC는 주축선수들의 복귀 없이도 플레이오프 진출 순위 진입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KCC는 오는 9일 서울 SK를 상대로 시즌 최초 4연승에 도전한다.

/김민근기자



김지후는 3경기에서 무려 65점을 퍼부으며 같은 기간 국내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가 됐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